

오피니언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배병삼



천도교의 핵심 사상은 인내천(人乃天)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권력이 곧 하늘'로 바뀌거나 '돈이 곧 하늘'로 변질되는 순간, 어떤 종교든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이것이 한국 종교사의 교훈이다.

신라 제2대 임금이 왕호는 '남해차차웅'이다. 훗날 당나라 유학생 김대문은 차차웅이 곧 무당(巫)을 뜻한다는 기록을 남겼다(삼국사기). 신라 초기 임금님들은 무당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권력에 취하고 돈과 결합한 무당들은 힘을 남용하다가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연오랑·세오녀가 일본으로 떠나자 신라평의 해가 빛을 잃었다는 설화는 사머니즘의 몰락을 상징한다(삼국유사).

그러는 불교국가였다. 한 때는 개성의 대사찰에 속한 사범들이 시내에서 세력을 다뤘 전부를 벌일 정도였다. 조선의 건국 명분 가운데 하나가 권력화한 불교의 척결이었다. 정도전의 '불제잡편' 속에 불교 배척의 철학이 오롯하다. 이에 응대하여 슬러 함허가 '현정론'이라는 저술을 통해 유불공존을 모색했지만 때가 늦었다. 조선 초 500년 간 승려들은 천민 대접을 받았다.

조선은 유교국가였다. 조선 후기 고을 마다 서원들이 넘쳐났다. 시골 선비들의 폐약집에 지방 수령들이 곤욕을 치렀다. 흥선대원군이 600여 곳의 서원들을 혁파하면서 "정녕 백성에게 해 되는 것이 있으면 비록 공자가 다시 살아난다 하더라도

나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일갈할 정도였다. 지금 텅 빈 채로 퇴락한 향교 건물이나 한자의 주부들 사이에 은밀히 퍼져나 갔다. 당시 양말도 함께 전래되었던 듯, 푸른 눈의 신부들은 천주교를 양말에 비유했다. 버선이 사람의 발에 꼭 끼어 발을 압박하는 반면, 양말은 누구든 신을 수 있는 신축성에 빚낸 것이었다. 버선이 계급과 성별로 사람을 차별하는 유교를 상징한다면 양말은 양반상놈, 남녀노소를 가

리지 않는 천주교의 평등한 사랑을 상징한 것이다.

개신교는 일제 하 3·1운동의 주축이었다. 일제 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옥살이를 치른 목사들도 드물지 않았다. 해방 후엔 민주화 운동의 추동력 이기도 하였다. 엄혹한 군사정권 아래서 노동자들과 학생들은 교회에서 은신한 경우가 많았다.

오늘날 개신교는 눈부신 성장과 더불어 짙은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특히 초대형 교회들의 행태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교회를 신도 숫자와 연계

종교가 특정한 사안을 두고 현실정체에 깊이 개입하는 것은 권력과 결합하는 일이다. 불교 쪽에서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옛날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한다"는 말이 틀리지 않다.

이 땅에서 명멸하는 종교들의 이력은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는 주역의 원리에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특정 종교가 왕이나 권력자를 배출할 때, 사람이 아닌 돈과 권력을 숭배할 때가 실은 몰락의 징후다.

제 종교만이 옳다는 독선으로 기고만장 과안하무인의 '바벨탑'을 높게 쌓을 때 추락은 그야말로 한 순간이라는 것이 이 땅 종교사의 교훈이다. 무당이 사라진 곳을 다져서 사찰이 들어섰고, 폐사지에 학교와 서원이 세워졌다. 그리고 퇴락한 학교의 터에 성당과 교회가 들어섰다. 그 변화는 순식간이었다.

초창기 양말의 정진, 그러니까 사람의 발을 감싸던 신축성과 평등성을 잃어버리는 순간, 즉 사람이 버선에 발을 맞추는 전도된 사태로 뒤집히는 순간, 어떤 종교든 사라지고 말았다. 한국 기독교는 '성경'과 예수의 본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헤아려야 할 때다. 눈앞의 힘과 권력이 한낱 신기루와 같음은 '성경'에서도 누누이 경고하고 있지 않던가! (영산대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버선과 양말

하여 매매하는가 하면, 제 자식에게 교회 물려주기도 하고, 부부와 부자간에 교회의 재산 분점으로 시끄럽게 하거나, 큰 교회의 목사들 가운데는 성문과 축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조차 있다.

최근 초등학생들 급식을 둘러싼 주민투표가 있었다. 결과가 다급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투표참여를 호소했다. 누군가 "밥 달라고 우는 경우는 봐어도, 밥 주지 말라고 우는 꼴은 처음 봤다"는 촌철살인을 날렸다. 진실은 복잡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의 목사들은 이 투표에 편파적으로 깊숙이 개입했다. 운동이 금지된 투표일 아침에조차 투표참여를 유도할 정도였다.

러스를 염두에 뒤 내시경 검사에 사용되는 부속기구들 역시 검사 후 바로 소독해야 하고 일회용 부속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권장된다.

병원마다 통일된 소독을 위해 정부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에 위탁을 하여 내시경 소독지침을 마련하고, 3년 전부터 내시경검진기관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대한 소화기내시경학회에서 마련한 소독 지침에 따라 잘 소독한다면 언급된 우려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국가암검진사업의 확대로 내시경 시행건수는 과거에 비해 월등히 증가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올바른 내시경검사의 시행과 내시경소독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내시경 소독액이나 소독 행위에 대한 의료수가는 현재까지 정해져 있지 않다. 정부의 내시경소독에 대한 의료수가인정과 일선 병의원에서 소독에 대한 시설과 인력 투자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세계로365병원 내과 원장)

검사만큼 중요한 내시경 소독

개 소독되고 관리된 장비, 내시경을 시행하는 의사의 숙련도, 전문화된 내시경실 간호 인력이다. 고가의 최신 기계를 탑재한 내시경만으로 결코 양질의 검사를 받았다고 할 수 없다. 숙련된 의사가 꼼꼼히 내장을 관찰하여 조기병변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의 내시경으로 여러 사람을 검사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히 소독하지 않으면 내시경을 통한 감염이 일어날 수 있다.

환자는 내시경 검사 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 숨김없이 말해 의료진에게 사전정보를 주어야 하고 의료진 역시 환자의 병력을 세밀히 파악하여야 한다. 활동성 폐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항결핵제를 복용하여 활동성이 없어진 후 내시경검사를 받아야 한다. 급성 A형간염 환자 역시 완치 후 내시경을 받아야 한다.

내시경은 구강, 식도, 위, 십이지장을 검사한다. 검사 후 내시경에는 다량의 침이나 위액과 같은 분비물과 위장관과 호흡기에 살고 있는 세균이 묻게 된다. 대장내시경은 항문을 통해 내시경이 삽입되고 검사 후 내시경은 변변과 여러 종류의 장내 세균이 묻게 된다. 검사가 끝남과 동시에 내시경을 그 자리에서 바로 닦아 내시경 바깥에 묻어 있는 이물을 제거하고 내시경 안쪽의 오염물질은 세정제를 흡입하여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다음 순서로 검사실과 분리된 세척실로 기구를 옮겨 본격적인 세척, 소독, 헹굼, 건조의 과정을 거친 후 비로소 다른 환자에게 사용가능하다.

조직검사를 시행할 때 조직채취과정에서 미세 출혈이 발생하므로 혈액을 통해 전파될 수 있는 B형, C형 간염, 성병, AIDS바이러스

의료 칼럼



손영해

내시경 검사를 받을 때 아침에 첫 순서로 검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환자가 있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내시경소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일 아침 처음 사용하는 내시경으로 검사를 받아야 안전이 된다는 것이다.

정말 내시경은 맨 처음 순서로 검사를 받아야 하나? 그렇지 않다. 내시경장비와 검사에 쓰인 부속기구 및 처치기구들은 내시경 후 즉시 소독과정을 거치기 때문이다. 내시경검사의 질을 좌우하는 것은 철저하

기고



박준조

추석이 되면 골치 아픈 것 중의 하나가 어른이나 친지들에게 무엇을 선물할까 이다. 선물 고르기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난 계절 내내 조바심과 땀으로 정성을 다한 농어업인을 떠올리면 대답은 간단하다.

올해 추석에도 이웃에 감사하는 마음을 친환경 농수특산물에 담아 전하면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전남은 깨끗한 땅과 풍부한 일조량, 청정한 바다와 세계 5대 갯벌을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전남산 농수특산물은 품질이 높고 영양가가 풍부하다.

전국 무농약 이상 친환경 인증면적의

추석선물은 친환경 농수특산물로

57%라는 통계가 증명하듯이 맛과 멋의 고장 전남하면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친환경 먹거리 생산지라는 데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은 없다. 지난해 겨울 구제역이 전국을 휩쓸 때에도 전남에서는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친환경 동물복지형 축산을 선도하고 사전에 대비해 왔기 때문이다.

전남산 우수 농수특산물은 8월 하순부터 9월 중순에 걸쳐 서울 등의 대도시에서 특별 판매된다. 농산물 직거래 장터나 대형 유통업체와의 연계 판매,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소비자가 구미에 맞는 농수산물이나 식료품을 손쉽게 구입하도록 환경을 찾아가는 맞춤형이다.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전국 농수특산물 한마당 장터', 매주 화요일 파천 경마공원의 '도농 직거래 장터' 지하철 7호 선 정담역에서 열리는 '철도 직거래 장터'에는 안심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전남산 먹을

거리가 즐비하게 대기하고 있다. 또한, 신세계 이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와의 연계 판매는 전남산 농식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전라도의 공동 브랜드인 '남도미향' 제품도 농협 하나로마트 등에 가면 손쉽게 구입이 가능하다.

온라인 특별 이벤트도 한다. 전남도가 운영하는 소관 물 '남도장터(www.jnmall.com)'에서는 풍성한 선물을 갖추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게 추석 성수품에 대한 초특가 할인 판매를 실시하며 구입자에게는 별도의 경품도 준다. QOOK TV 채널 등 5대 홈쇼핑에서도 가격대별로 풍성한 상품을 준비하고 판매를 기다린다.

다만, 추석 선물을 구입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것은 원산지 확인이다. 원산지 표시는 쇠고기·콩나물·대사리·고사리·수산물 등 총 662개 품목이 대상이다.

지난 3월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 여파로

인한 원전 사고로 일본산 수입 농수산물에서 세슘, 요오드 등의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되었다. 중국에서는 체소에 성장촉진제를 사용한다는 뉴스와 함께 발암물질이 포함된 가짜 축발이 적발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해야 한다.

전남도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시군, 농관원,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에 나선다. 의심스러우면 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시에는 포상금도 따른다.

올해 추석에는 부모님의 건강상태를 잘 살펴보고 이웃에게 친환경 농산물로 고마움을 표시하면 주는 기쁨이 배로 늘어날 것이다. 더불어 병해·태풍·집중호우 속에서도 맘 흘러 가꾼 농어업인에게 수확의 기쁨을 뽐낼 안겨주어 나눔을 실천하는 것은 공생사회에 걸맞은 소비자의 도리다. 추석에는 주변의 고마운 분들과 품격 높은 전남 친환경 농수특산물을 함께 나누면 어떨까? (전남도 식품유통과장)

이다. 이제 말로만 출산장려를 외칠 게 아니라 근본적인 반성과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시군 산부인과의 분만실 설치를 의무화하고, 육아휴직이나 양육비 지원을 더 확대해서 여성들이 '아이 낳고 싶은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 낮은 출산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발등의 불'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미룰 수는 없다. 국가와 사회를 믿고 누구든 아무 걱정 없이 출산을 꿈꿀 수 있는 환경이 먼저 정비되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홍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6메일 opinion@kwangju.co.kr

시설

U대회 수영장 국비 차질, 광주시 책임 크다

2015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수영장 입지와 관련된 과열 논란이 대회 성공 개최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만간 수영장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엔 국비 없이 자체 예산만으로 U대회를 준비해야 할 최악의 상황에 놓일 것이다.

광주시는 한국개발연구원 다음달 말 '예비타당성 조사' 최종 결과를 제출하면 곧바로 중앙부처에 2012년에 필요한 국비 보조를 요구할 예정이다. 하지만 오는 10월 2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마감까지 수영장 등 신규 시설 설치비 등이 포함된 최종 예산안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국비 지원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렇다고 수영장 등 체육시설 입지를 한달 내에 결정하리란 쉽지 않다. 다음 주 광주시 자체 입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한 뒤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 조사에 이를 반영해야 하는 만큼 시일이

촉박하다. 또 각 자치구와 지역민들의 이해가 상충돼 있어 공청회가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번엔 드러난 모든 문제가 광주시가 안아야 할 것이다. 수영장 문제만 하더라도 당초 광산구 수완지구로 결정된 입지가 남구 쪽으로 기울더니 다시금 각 대학에 신청을 받았다고 게다가 수형해 과열 경쟁만 키운 것이다.

이들 전 기자회견을 통해 수완지구가 부지 가격이 높다는 한국개발연구원 측의 요청에 따라 임의로 수영장을 남구 송하동 송암공민 일대, 다목적체육관은 광산구 광주우대를 예시로 제출한 것이라든가 말한 것도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왜 다시 대학 측에 입지 신청을 받았는지, 문화관광부에 제출한 입지 신청공문에 왜 비밀을 요청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심부름 행정으로 지역 내 분란을 자초하고, 국비 지원문제까지 야기한 광주시는 어떤 식이든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다.

화인코리아 회생 방해하는 사조그룹

참치 원양어업 및 식품가공 전문회사인 사조그룹이 함평군에 추진하기로 했던 대규모 육가공 사업이 사실상 무산됐다. 사조그룹은 지난해 12월 함평군 학교면 일원에 2013년까지 760억 원을 들여 최신 도계설비와 육가공 공장 등을 건립하기로 전남도 등과 투자협약을 체결했음에도 뚜렷한 이유없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배경에는 사업비가 많이 드는 신규투자 대신 실적이 큰 나주의 닭·오리 가공업체 화인코리아를 인수할려는 쪽으로 선회했다는 게 관련 업계의 시각이다. 화인코리아가 현재 파산절차 중인데다 1000억 원대 매출의 알짜기업이라는 점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얘기도.

문제는 사조그룹이 전남도 등과 맺은 투자협약을 한신씩처럼 핑개쳐 지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데다 화인코리아 인수를 목적으로 회사 회생 절차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계열사를 내세워 금융기관의 담보채권 등을 몰래 매입하거나 경영진에 회사를 넘기라고 회유하는가 하면 법원에 회생인가에 동의한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가 심문에선 반대편사를 표시하는 등 회사 회생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여러모로 처한 중소기업을 편법으로 뚫아 인수를하려는 이 같은 행위는 대기업의 횡포이자 요즘 사회의 화두인 '공생과 동반 성장'에도 맞지 않다.

화인코리아는 지난해 94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린데 이어 올해는 5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현재 보유한 현금과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으로 사조그룹의 채권도 즉시 상환이 가능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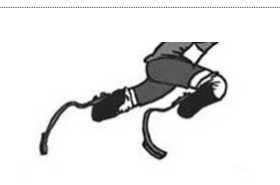
우리는 법원과 채권단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화인코리아에 다시 한번 회생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사조그룹도 뜻밖까지 못한 방법으로 강제 인수를 한다면 지역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無等鼓

난 난 꿈이 있었죠 / 버려지고 쫓겨 남 투하여도 / 내 가슴 깊숙히 보물과 같이 / 간직했던 꿈 / 혹은 때론 누군가가 못 모를 비웃음 / 내 등 뒤에 흘릴 때도 / 난 참아 야 했죠 / 참을 수 있었죠 / 그 날을 위해.. '거위의 꿈'의 가사처럼 자신에 담긴

가 없이 태어나 생후 11개월 만에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대수술을 받은 그는 우여곡절 끝에 탄소섬유로 만든 보철다리를 달고, 2008년 베이징 패럴림픽 남자 100·200·400m를 모두 석권한 후 비장애인 무대에 서기로 했다.

거위의 꿈



그의 도전은 여러가지 난관에 부딪혔지만 끝내 비장애인의 무대에 서는 꿈을 이 시기를 전한다. '거위의 꿈'을 부른 33년 차 가수 인순이는 54세 나이와 가요계 최고참이라는 계급장을 때고 '나가수'라는 프로에서 후배들과 경쟁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정열을 불태우고 있다.

전 세계인의 관심 속에 치러지고 있는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에서 장애인 선수 최초로 준결승을 무대에 선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 토리우스(24·남아프리카공화국)도 마찬가지다.

그는 남자 400m 준결승에서 예선보다 저조한 기록으로 3조 최하위에 그쳤지만 경기가 끝난 뒤 "꿈을 이뤘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선천적으로 종아리뼈

다른 꿈을 꾸고 있다. '꿈꾸는 토루소맨'으로 유명한 팔다리가 없는 레슬러 '디스틴 카터'도 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어릴 때 우연한 사고로 인해 팔다리를 절단해야만 하는 극단적인 상황을 겪은 주인공은 자라면서 여러 대회에서 장애인 선수 최초로 준결승을 무대에 선 '블레이드 러너' 오스카 피스 토리우스(24·남아프리카공화국)도 마찬가지다. 그는 남자 400m 준결승에서 예선보다 저조한 기록으로 3조 최하위에 그쳤지만 경기가 끝난 뒤 "꿈을 이뤘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선천적으로 종아리뼈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시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李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21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대표 FAX 222-649> 여론조사부 2200-621 <대표 FAX 222-612> 체육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이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저출산 해소 위해 중소도시 산부인과 분만실 의무화

전국 시군 단위 작은 중소도시 산부인과의 2곳 중 1곳에 분만실이 없다고 한다. 우리 전남·전북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가까이 있는 산부인과에 신생아 분만실이 없다면 그곳에 사는 임산부는 아이 낳을 시기가 다가올수록 불안해질 것이다. 갑자기 오는 통증에 무거운 배를 안고 아기를 낳기 위해 멀리 원정길에 올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의료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출산율은 1인당 1.22명인데 이는 세계 평균인 2.54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저출산은 중장기적으로 생산인구 감소 및 잠재성장력 저하, 고령사회의 부양능력 위축 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아이 울음소리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사라질 경우 국가적 과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정부도 알고 있을 것이다. 물론 정부가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적지 않은 대책을 마련하면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 출산장려 시책을 펴고 있다. 그런데 출산에 필요한 분만실 하나 갖춰 놓지 않고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건 이해하기 어려운 일